

## “이제 갈림길은 없어졌다. 7월 총파업 한길로”

###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대회’ 열어... “문재인 정부는 노동 적폐가 될 텐가?”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에게 “노동 적폐를 청산할 것인지, 스스로 노동 적폐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라며 최저임금법 개악 등 노동정책 후퇴를 규탄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6월 9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6.13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 투쟁 ▲행정입법-사법부에 신적한 노동 적폐 청산 투쟁 ▲6월 30일 10만 전국노동자대회와 연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위한 2018년 하반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시태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



동정책을 역주행한다면 전면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6월 항쟁의 성과가 가득한 정권에 의해 기만당하고 노동자 민중은 다시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정권교체만으로 새로운 세상은 오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6월 30일 10만 명이 모이는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투쟁 발언을 통해 “이제 갈림길은 없어졌다.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전진이나 후퇴냐, 오직 한길만 있을 뿐이다”라며 “금속노조는 온 힘을 다해 7월 총파업 상경 투쟁을 조직해 최저임금 삭감 폐기, 비정규직철폐, 산별교섭 제도화를 쟁취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결의대회 참가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삭감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말고만 노동 존중, 노동 적폐’라고 쓴 얼음을 부수며 6.30 전국노동자대회 총력 조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6월 30일 조합원 10만 명이 참가하는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삭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등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저지하고 노동 적폐를 끝장낸다는 계획이다.

## 대우조선 노동자들, 금속노조 식구됐다

### 8일 금속노조 가입 총회 투표 개표, 71.3%로 가결... “산별노조가 투쟁하는 노동자 대안임을 증명”

대우조선노동조합이 더 큰 배인 금속노조로 옮겨 탄다.

대우조선노동조합(위원장 홍성태)은 6월 7일과 8일 이틀간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회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에 대우조선노조 조합원 5,207명 투표율 88.5%이 참가, 3,714명찬성률71.3%이 찬성표를 던져 기존의 기업노조 체제에서 금속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금속노조는 환영 성명서를 내고 “대우조선노동조합 가입으로 금속 산별 건설이 완성을 향해 다가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산별노조가 투쟁하는 노동자의 대안임을 증명했다”라고 대우조선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을 환영했다.

대우조선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조선업 구조조정 의 파도가 높아지면서 제조업 노동자를 포괄하는 금속노조에 가입해 함께 싸워야 한다는 판단

을 내렸다. 이 판단을 기반으로 이번 조직형태 변경 투표에서 71%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 등 의결단위 회의를 열어 대우조선노동조합의 소속 지부 편제 등을 논의하고 산별 전환 가결 이후의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재벌의 노조파괴와 이윤 위한 타살 중단하라”

노동 열사·희생자 합동 추모대회-27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열어

금속노조가 6월 9일 ‘최저임금 삭감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 대회’에 이어 ‘재벌체제 청산 노조파괴 분쇄, 비정규직철폐 노동 열사·희생자 합동 추모대회’를 열었다. 노조 조합원들은 55명의 금속노조 열사 영정과 열사들을 상징하는 비둘기 모양의 허얀 풍선을 들고 청와대 앞에서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과하고, 노동을 탄압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약자의 편에서 강자에 맞서 온몸을 던져 싸운 열사 정신을 생각하고, 민주노총 방식으로 투쟁하며 열사의 뜻을 이어 가겠다”라며 열사들의 영정 앞에 머리를 숙였다.

범국민추모제에 참가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한반도 항구 평화정착과 외세 없는 한

이승렬 부위원장은 추모대회를 여는 발언에서 “오늘 열사 추모제는 노동해방 세상을 꿈꾸는 열사들의 염원을 이어받아 문재인 정권이 내팽개친 최저임금과 노조파괴 문제,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한 금속노조 7월 총파업을 결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합동 추모대회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합동 추모제를 공동주최한 ‘민중 공동 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원회’ 김태연 대표는 “재벌들의 이익과 탐욕 앞에 수많은 열사가 목숨을 잃었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들을 위해 최저임금마저 도둑질했다”라고 비판했다. 김태연 대표는 “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재벌체제를 청산하자”라고 함어 말했다.

조합원들은 행진하며 자본과 권력이 자행한 노조파괴와 탄압, 이에 맞선 열사들의 투쟁과 죽음에 관한 증언과 규탄을 이어갔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서울광장에 도착해 ‘27회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 참가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범국민추모제 추모사에서 “수많은 노동열사들을 만든 노동현장에서 찬박한 자본과 적폐 정권이 결탁하고, 불의한 사법부의 편협한 재판으로 노동조합을 파

반도 ▲한일 위안부 이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전면 남북교류와 화해 ▲분단 적폐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 완수 ▲국가보안법 폐기와 양심수 석방 ▲노동자·농민 희생 강요, 빈민 탄압, 장애인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일소로 민중 생존권 쟁취 ▲세월호 참사와 미진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결의했다.

‘27회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 참가한 노동자와 시민 가족들은 추모사와 추모공연에 이어 헌화와 분향으로 추모제를 마쳤다.

## “7월 총파업으로 노동적폐 청산하자”

7일 충남지부, 노동자·시민 한파당 열어...나와 내 이웃의 삶을 위한 투쟁 벌이겠다”

금속노조 충남지부가 6월 7일 충남 천안 아우리광장에서 ‘최저임금 개악 문재인 정권 규탄 노동적폐 보수정당 심판 산별노조 할 권리 쟁취 충남 노동자·시민 한파당’을 열었다.

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은 본대회에 앞서 ‘노조파괴 금지, 노동적폐 청산, 재벌개혁, 산별노조 할 권리’ 등을 적은 깃발을 들고 천안역 앞에서 아우리광장까지 행진했다.

이날 노조 충남지부는 ▲노동자만 희생하는

구조조정 중단 ▲사람까지 죽이는 노조파괴 중단 ▲헌법이 보장한 노조 할 권리 쟁취 ▲최저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심판을 결의하는 ‘충남 노동자 선언’을 발표했다.

정원영 노조 충남지부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의 문제를 저임금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 덮으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충남 금

속노동자들이 내 임금 올리겠다고 모인 자리가 아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청소년, 청년 노동자, 우리 이웃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7월에 총파업을 벌이고 상경 투쟁을 전개한다. 7월에 산별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최저임금 노동법 개정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라며 충남지부 조합원들에게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